

# K리그 역대급 '저니맨'은 누구?

정성훈, 리그 통산 259경기 출전 57골 24도움... 외국인 선수로는 알렉스·알미르

생존 경쟁이 쉽지 않은 프로축구 K리그에서 팀을 옮겨다니던 역대급 저니맨은 누구일까? 스포츠계에서 '저니맨(Journeyman)'이라는 표현은 이곳 저곳 팀을 많이 옮기는 선수를 지칭한다. 의무 복무를 위한 군경 팀 입대를 제외하고 K리그에서 몸담았던 팀이 가장 많았던 '저니맨'은 정성훈이다.

2002년 울산에서 프로 데뷔한 정성훈은 대전, 부산, 전북, 전남, 경남, 부천 등 13시즌 동안 총 7개 팀에서 활약했다. K리그 통산 259경기 출전해 57골 24도움이다.

특히 부산에서 활약으로 2008년 10월 국가대표로 발탁돼 8경기를 뛰기도 했다.

2011년 전북으로 이적한 정성훈은 이후 전남, 대전, 경남 등 2013년까지 3차례 팀을 옮겼다.

일본 J리그 콘사도레 삿포로로 이적해 첫 해외 진출에 성공한 정성훈은 내셔널리그 김해시청을 거쳐 2017년 K리그2(2부리그) 부천에서 커리어를 마감했다.

2000년 이후 K리그 선수들의 평균 활약 기간은 3.6년이다. 국내 선수는 4.1년이고, 외국인 선수는 1.8년으로 K리그에서 생존이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서 정성훈은 자신의 가치를 꾸준히 인정받아 소속팀을 옮겨가며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간 대표 '저니맨'이다.

정성훈에 이어 6개 팀을 거친 선수로는 이근호(울산), 강민수(부산), 김준엽(인천), 박기동(경남) 등이 있다.

외국인 선수 중 대표적인 저니맨은 알렉스와

알미르가 있다.

2010년 내셔널리그 울산현대미포조선에 입단한 알렉스는 브라질로 돌아갔다 2013년 고양에 입단해 K리그 무대에 데뷔했다.

그리고 이듬해 강원으로 팀을 옮겼고, 2015년 태극 무대를 거쳐 2016년 대구로 다시 돌아왔다. 이후 안양, 서울이랜드를 오가며 K리그 통산 153경기 64득점 13도움을 기록했다.

알미르는 2008년 경남에서 한 시즌을 뛰 후 2013년 고양에 입단하며 K리그로 돌아왔다.

이후 울산, 강원, 부천까지 K리그에서만 5개 팀을 옮겨 다녔다. 올해 35세인 알미르는 현재 말레이시아 프로팀에서 현역 선수로 활약 중이다. /뉴시스

# "한국 귀국, 옳은 판단... 컨디션 끌어올릴 것"

지난달 24일 귀국한 최지만

자가격리 마치고 개인훈련 돌입

"빨리 경기하고 싶지만 안전이 중요"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메이저리그 정규시즌이 연기되면서 한국 귀국을 택한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이 귀국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이 13일 오후 인천 서구 위드베이스볼 아카데미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주 동안 운동을 쉬 탓에 천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최지만은 하루빨리 경기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최지만은 13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베이스볼 아카데미에서 개인 훈련을 공개했다. 해당 베이스볼 아카데미는 최지만의 친형이 운영하는 곳으로,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다.

코로나19로 훈련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최지만은 지난달 24일 귀국했다. 그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한 뒤 지난 8일부터 이곳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최지만은 "결정하기까지 힘들었다.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또 다시 미국으로 간 뒤에 또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한 달 정도 훈련을 하지 못한다"며 "무척 고민했는데 메이저리그 시설을 오픈한다고 했다가 폐쇄돼 훈련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귀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 온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 귀국 전 미국에 있을 때에도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며 "여기는 집에만 있어도 가족이 있어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최지만은 "꼭 쉬고, 시차 적응을 했다. 어머니 밥도 많이 먹고, 강아지와 시간을 보냈다"고 되돌아왔다.

최지만은 형이 운영하는 실내 연습장에서 캐치볼, 티배팅 등을 하며 서서히 컨디션을 조율 중이다. 그는 "소속팀 트레이너와 한국시간으로 낮 12시에 영상통화를 하며 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덧붙였다.

KBO리그의 경우 5월초 무관중 경기로 개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 메이저리그 개막이 KBO리그보다 늦어질 수 있다.

최지만은 "지난 겨울 훈련을 열심히 하고, 느낌이 좋았다. 보여주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경기를 무척 뛰고 싶다. 은퇴하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무관중 경기 개막에 대해 "선수들의 기분은 좋지 않지만, 경기를 꼭 와서 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선수들도 사람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시민 공감 체육회 조성할 것"

백재운 김제시체육회장



"김제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백재운 김제시체육회장은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적 실행을 강조하며,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김제시민들이 진정 누릴 수 있는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백 회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꼽고 김제시와 김제시의 회를 수시로 만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백 회장은 체육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맞물려 김제만의 장점을 살린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2의 체육공원 조성(체육복합센터) ▲체육-문화-관광 연계 등을 구상 중이다.

백 회장은 "현재 김제문화체육공원은 포화상태인 만큼 제2의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모두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경제 살리기 복안으로 김제 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

백 회장은 "각종 체육대회나 축제 등이 열려도 잠시 머물고 갈 뿐이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육과 문화,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체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얻고, 김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김제시체육회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바흐 위원장 "도쿄올림픽 연기 추가 비용, 일부 부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사진)이 내년으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 투입될 추가 비용과 관련해 "IOC가 일부를 부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바흐 위원장은 "IOC의 보름은 올림픽의 취소를 보장한다. 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시스

바흐 위원장은 13일(한국시간) 독일 '디 벨트'와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으나 추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일부 추가 비용은 IOC가 부담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아베 신조 총리와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합의했다. 일본은 기존 계약에 따라 수행하고, IOC도 일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미 수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다"고 했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올해 7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됐다.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논의 끝에 지난달 24일 연기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정당한 1년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약 3000억엔(약 3조3800억원) 수준이다.

체육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업체 특별용자 500억원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체에 특별용자 500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3월12일부터 4월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산업을 대상으로 접수 받은 특별용자 신청을 2차에 걸쳐 심사 및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이번 용자지원 사업은 총 1229개 기업이 신청했다.

공단은 이 중 1045개 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용자 결정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2차 특별용자 지원 대상에 선정된 피해업체는 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아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달 461억원 규모의 일반용자 1차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뉴시스

사랑과 눈물, 그리움이 녹아있는  
신이 숨겨둔 최고의 명당,  
호정공원

호정공원

Hojeong Memorial Park

수목장 · 잔디장

매장묘

봉안묘

2020년 윤달 (05.23~06.20)  
사용문의) 1833-4491

한옥봉안당